

#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 9.13) >

◆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.. LH 공공임대 재건축 1호 예산 전액 ‘싹둑’

□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(30년이상 경과한 영구임대) 재정비(재건축)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.

○ '24년부터 재정비 시범단지 중 2개소(하계5, 상계마들)에 114.2억원을 편성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, '25년 정부 예산안에도 총 412.4억원(출자 142.7억, 용자 269.7억)을 편성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노후 공공임대(79개 단지)의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\*을 추진 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, 리모델링 등 추진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, LH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(중계1) 또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.

\* '노후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 추진전략 수립'('24.5~11월, 국토연)

□ 정부는 '25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.2만호를 반영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광림 (044-201-4539)
		담당자	사무관	성언수 (044-201-4517)
			주무관	김태근 (044-201-3354)